

‘나주물 농특산물 특가전’ 최대 20% 할인

한돈800g · 사인머스켓 · 상추 · 고구마 꾸러미 3만원 등

나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나주물’에서 2024 나주영산강축제를 기념해 10월 한 달간 알찬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나주배, 쌀, 영산포 속성 홍어, 장류 등 우수 농특산물을 나주물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전 품목 무료 배송 혜택은 덩이다.

나왔다 하면 완판 행진인 ‘한돈 꾸러미’ 세트는 3만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확 낮췄다.

나주축협 1등급 삼겹살(400g) · 목살(400g)에 상추 · 사인머스켓 · 고구마 등 로컬푸드 8종으로 구성된 온가족이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한돈 꾸러미는 오는 13일까지 주문 예약을 받으며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시는 한 달간 나주물 최고 구매왕, 우수 후기자를 선정해 나주배, 배추 등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영산강 정원에서 개막하는 ‘2024 나주영산강축제’에서는 나주물 신규 회원 및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주농업페스타존 나주물홍보관을 방문해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 왕건이 탄넛쌀(500g) 1포, 나주배 2포를 증정한다.

나주물 소비자가 3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시하면 총소비금액 10% 쿠폰을 준다. 쿠폰은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신동혁 기자

장성 ‘새싹삼 치킨 바비큐’ 인기

장작불에 굽고 새싹삼 레몬소스 곁들여 큰 호응

장성군 대표 특산물 새싹삼과 백종원(쥬더본코리아 대표)의 손맛이 만나 ‘초대박 메뉴’가 탄생했다. 축제 주무대 황룡정원에서 맛볼 수 있는 ‘장성 새싹삼 치킨 바비큐’가 연이은 매진 기록으로 화제다.



장성지역 업체에서 공수한 양질의 닭을 여러 단계에 걸쳐 장작불로 정성스레 굽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다.

훈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맛’이 스며드는 데다 기름기까지 속 빠져 담백하다. 여기에 특제 새싹삼 파우더를 입혀 고급스런 풍미까지 더해졌다.

장성지역 업체에서 공수한 양질의 닭을 여러 단계에 걸쳐 장작불로 정성스레 굽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다. 훈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맛’이 스며드는 데다 기름기까지 속 빠져 담백하다. 여기에 특제 새싹삼 파우더를 입혀 고급스런 풍미까지 더해졌다.

화룡정점은 ‘새싹삼 레몬소스’다. 새콤달콤한 맛과 새싹삼 특유의 향이 혼재 치킨 바비큐와 절묘한 조화를 이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에서 만난 김모 씨(담양군)는 “2시간 줄 서서 먹었는데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장성 새싹삼 치킨 바비큐’는 장성군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지역 외식업체,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식품영양학과,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가 공동 참여

하고 있는 ‘장성 특화음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 쥬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장성산 농특산물을 이용한 상무대 상생급식 메뉴 30여 종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음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 농업인과 외식업 종사자,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장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식도시’ 완성을 향한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많이 찾아 주셔서 다양하게 준비된 지역 먹거리들을 즐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흥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18일 개막

‘100세 시대, 통합의학’ 주제 오는 22일까지 개최

110개 기관 의료진 · 전문가 참가 진료체험 제공

장흥군은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통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통합의학을 대표하는 장흥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목표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과 병원, 의료산업 업체, 보건소 등 11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

해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한다.

18일 오후 2시 통합의학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한 주제영상과 통합과 상생 세레모니,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 전인병원, 충주 위담통합병원 등 통합의학전문 의료기관 유치가 집중되고, 체험부스를 늘렸다. 야외 약초 족욕장, 키즈체험, 맨발지압존, 어싱길 등 통합의학적 체험프로그램은 확대하고 전시관

규모도 기존보다 확장했다.

전시관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 힐링테라피&의료산업관으로 구성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의 단순히 질병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미래의학”이라며, “통합의학박람회의 건강한 체합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서울 봉은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

3일간 60여 품목 판매... 관광객 관심 이어져



담양군은 서울 봉은사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담양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장건 1230주년 봉은사 개산대제(절의 창건일을 기념하여 여는 큰 법회) 전통문화축

제’ 기념으로, 담양 · 장성 · 부여 · 평창 · 해남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열린 대규모 축제인 만큼,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북적이

며 담양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우무(근야) 젤리와 두부과자, 김, 김부각, 쌀엿강정, 수제약과 등이 외국인과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시종가보다 20프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을 맞아 이번 봉은사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담양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오는 13일 열리는 무등산 지오마라톤 대회, 14일 서울 시청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등 야외 직거래 장터를 운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담양=강성국 기자

화순, 고인돌 유적지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연다

18~19일 개최... 지역문화유산 활용형 지속 가능 관광 모델 발굴 기대

화순군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024 화순 고인돌 유적지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국제문화재전략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제3회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도곡면 모산마을을 기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순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고인돌은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인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섹션에서는 ‘문화유산과 지역 사회 참여’란 주제로 이희성(단국대학교 교수), Ary Basoeki Albertusstoppa 인도네시아 재단 코디네이터 등이 발제자로 나서 고인돌을 비롯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와의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어서, 제2섹션인 ‘관광 · 홍보 · 활용의 사례’에서는 Jayarajan

Vayalkar(Folkard 창립자), 나오미(고창운곡생태문화공동체 대표), Yaxrat Mambekov(카자흐스탄 주르케노프 국립아카데미 교수)가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이다. 학술대회가 앞서 18일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이어서면 적벽과 UNWTO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도곡면 모산마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고인돌 유적지를 차례로 답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우평마을, 소멸 위기 극복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활발

함평군 언다면 우평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에 3년간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남도 시책사업이다.

언다면 우평마을은 현재 거주 인구 28명으로 마을 소멸의 경계에 서 있지만, 남아 있는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평마을은 함평군의 상징인 나비, 국화, 한우 등의 벽화를 그려 마을 분위기를 개선했고, 올해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였던 냇은 우물을 복원해 주민 쉼터로 탈바꿈시키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마을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초상화 캐리커처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금옥 우평마을 이장은 “우리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미관이 개선되면서 귀농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마을 주민들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협력과 화합을 기반으로 마을 존립을 위한 활로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이번 으뜸마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더불어 살자는 일등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